

李景奭의 「楓嶽錄」 삼입시의 두 가지 양상

채 지 수 *

<目次>

I. 서론	1. 다양한 정감과 의론의 표출
II. 「풍악록」의 성격 검토	2. 상상력을 통한 낭만적 묘사
III. 삼입시의 양상과 그 효과	IV. 결론

<국문 초록>

白軒 李景奭은 조선 선조 28년(1595)에서 현종 12년(1671)까지 살았던 문인으로, 국가가 두 차례의 전란을 겪는 과정에 관리로서 ‘삼전도비문’의 찬술과 중국 백마산성 유배 등의 고난을 경험해야 했던 인물이다. 그는 중국에의 억류에서 풀려난 1651년 9월에 약 10일 동안 금강산을 유람하고 「楓嶽錄」을 남겼다. 「풍악록」은 산문과 52수의 시가 함께 있는 작품으로, 유람 여정에 따른 산문 서술 중간 중간에 시를 삽입한 시와 산문의 복합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이경석의 「풍악록」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성격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작자가 금강산 기행문 안에서 한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산문 서술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어떤 효과를 지니게 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풍악록」은 이경석의 문집인 『백현집』 권10의 ‘詩稿’에 실려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금강산 유람시가 중심이 되고, 시마다 산문의 시서를 부기한 형태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풍악록」의 산문은 독립적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 nalnyang@naver.com

인 ‘유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람의 여정과 견문을 유기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이를 시서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문이 주가 되는 가운데 중간 중간 시를 삽입한 ‘시삽입형’의 ‘산주운중’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

『풍악록』의 산문 서술은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객관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유산기들이 보여주는 서술방식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산문 서술 중반에 서술을 잠시 멈추고 한시를 통해 금강산 유람 도중 경험했던 특정 상황에 대한 기쁨과 아쉬움· 교유의 정 등을 표출하였다. 이는 산문을 통해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작자의 감정을 한시라는 장치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

한편, 이경석은 『풍악록』에서 ‘상상력을 통한 낭만적 묘사’의 성격을 지닌 시를 다수 삽입하여, 금강산의 경물과 그 속에서 느낀 자신의 흥취를 환상적인 시구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풍악록』의 산문 서술과 매우 대조적이다. 즉, 『풍악록』에서는 산문과 삽입시가 각각 ‘객관적 정보’·‘환상적 분위기와 흥취’의 제공이라는 구별된 기능을 맡은 채 상호보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풍악록』은 시와 산문을 한 작품 안에 함께 수록함으로써, 각각의 장르가 지니는 저마다의 특성을 상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강산 기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李景奭, 楓嶽錄, 금강산, 산수유람, 유산기, 삽입시

I. 서론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은 조선 선조 28년(1595)에서 현종 12년(1671)까지 살았던 문인으로, 벼슬은 영의정까지 지냈다. 그는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달렸던 위기의 상황에서 고위 관료로서 당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나서 해결하고자 했으며, 청에 항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꺼리던 ‘三田渡碑文’을 찬술하는 치욕스러운 일까지 겪어야했다. 이로 인해 훗날 정계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 등 조선의 혼란했던 시기에 관리로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인물이다. 특히 효종 원년(1650)에 청 사신이 조선을 의심해 협박하자, 영의정으로서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백마산성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후로 효종 2년(1651)에 풀려나 귀국하였는데, 그 해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평소의 숙원이던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楓嶽錄」을 남겼다.¹⁾ 「풍악록」은 『백헌집』 외에 『臥遊錄』에도 수록되어 널리 읽힌 17세기 금강산기행시문의 대표작이다.²⁾

유산문학은 작자의 산수관과 미적 관점이 담겨있는 장르로 우리는 이를 통해 옛 선인들의 산수 인식과 심미적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수 유람을 바탕으로 한 시문의 서술태도와 방식은 작자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선인들의 산수 유람은 다양한 형태의 산수기행문학 또는 유산문학의 창작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학적 효과 또한 조금씩 달라진다.

「풍악록」의 산문 서술은 비교적 간결하고 객관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유산기들이 보여주는 서술방식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산문 서술 중간에 상당수의 시를 싣고 있어 산문과 시의 혼합을 서술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산문과 시의 성격과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곧 「풍악록」과 이경석의 금강산 유람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또 대다수의 금강산 유기에서는 이경석의 작품에서처럼 산문과 시가 함께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경석의 「풍악록」을 중심으로 하여 작자가 금강산 기행문 안에서 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산문 서술과 함께 어우러짐으

1) 본고에서 논의되는 「풍악록」은 『한국문집총간』(95~96)에 실린 『백헌집』 권 10을 대상으로 한다.

2) 강혜선, 「백헌 이경석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6.

로써 어떤 효과를 지니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풍악록」의 삽입시를 ‘다양한 정감과 의론의 표출’, 그리고 ‘상상력을 통한 낭만적 묘사’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文·韻의 혼합적 형태로서 기행문 속 삽입시의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 「풍악록」의 성격 검토

「풍악록」에 삽입된 시의 성격과 그것이 산문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풍악록」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풍악록」은 산문과 52수의 시가 함께 있는 작품으로, 유람 여정에 따른 산문 서술 중간 중간에 시를 삽입한 시와 산문의 복합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³⁾ 많은 문인들이 유람의 경험을 산문과 시로 함께 남겼지만, 후일 문집에 실는 과정에서는 이들을 각각 장르별로 분류하여 실기도 하였는데,⁴⁾ 이경석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풍악록」이 이경석의 문집인 『백헌집』 권10의 ‘詩稿’에 실려 있어, 그 장르적 성격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한국

3) 본래 「풍악록」의 말미에는 150운의 5언 장편시도 함께 있는데, 이는 산문 중간 중간 삽입되어 있는 시들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풍악록」의 삽입 시들이 내용면에서 유람에서의 인상적인 부분을 읊고 있는 것이라면, 후반부의 장편시는 금강산 유람 전체의 과정을 총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작자가 “이를 기록하고 여기에 5언 풍악행 한 편을 덧붙인다[足之].”고 밝힌 점으로 보아, 앞의 산문 서술과 시가 「풍악록」의 주 텍스트이고, 말미의 5언 장편시는 이에 덧붙인 ‘부가(附加)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풍악행의 내용은 앞의 산문 서술 내용을 그대로 장편시화 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다루지 않겠다.

4) 예컨대 조선시대 문인 이원(李龜)은 「遊金剛錄」을 지을 당시 여정에 따른 산문 서술 중간에 시 작품을 함께 기록해 두었으나, 훗날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는 산문과 삽입시를 따로 잡저(雜著)와 시부(詩部)로 분류하여 편집하였다.

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의 해제에서는 이경석의 「풍악록」에 대해 금강산 유람시를 모은 ‘詩錄’이며, 시 작품들 사이마다 삽입된 산문은 그가 지나온 경로와 풍경을 서술한 ‘詩序’라고 규정하고 있다.⁵⁾ 「풍악록」이 시작품이 주가 되고 산문서술은 부수적인 ‘韻主散從’의 형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풍악록」의 산문은 단지 시를 위해 삽입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산문 속에 한시가 삽입된 ‘詩插入型’의 ‘散主韻從’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내용면에서 산문 서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석은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유람을 마치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산문을 통해 유기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풍악록」의 산문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풍악록」에 삽입된 시작품들은 금강산 유람 중 이경석이 인상 깊게 본 일부만을 소재로 삼고 있다. ‘序’라는 것은 산문 문체의 하나로서, 문장이나 서적의 저술 동기·경위 및 저작의 내용과 체제를 밝히고 설명하는 글⁶⁾이다. 시서 역시 일반적인 서문과 같은 기능을 하며, 운문의 앞에 올 경우 주로 운문이 지어진 경위나 배경·동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시서는 뒤에 이어지는 시의 내용이나 주제를 압축해 보여주며, 자연스레 주제나 내용상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한국고전번역원 『백현집』 해제의 정의에 따르면, 「풍악록」의 산문은 어디까지나 시작품들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텍스트를 살펴보면, 「풍악록」의 산문부는 단지 시서로만 보기 어렵다.

24일 아침식사 후에 장안사에서 명당으로 갔다 (중략) 2리 쯤 가니 백화암이 있었다. 북쪽에 서산대사의 부도와 碑銘이 있으니, 곧 月沙相公(월사상공; 이정구)이 짓고 東陽尉(동양위: 신익성)가 쓴 것이었다. (중략) 표훈사의 정당은 이름

5) 김성애, 『백현집』 해제, 한국고전종합DB.

6)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p.224.

이 반야인데 曹友仁이 쓴 것이라고 한다. (중략) 표훈사에서 2리쯤 올라가면 정양사로, 장안사에서 10리쯤 떨어져 있는데 절은 방광대 아래에 있다. (중략) 정양사의 동선당 동쪽에 작은 누대가 있는데 혈성루라고 한다. (중략) 내가 처음 혈성루에 올라 와 나도 모르케 눈이 트이고 정신이 상쾌해졌다. 이윽고 석양이 비껴 비치자 산빛이 더욱 밝아지니 이 또한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절구 한 수를 읊어 말하길, “만이 천명의 하늘나라 선녀들, 날개옷 차려입고 광한전 앞뜰서 춤 마치고는 높이 꽃은 옥비녀를 아직 정돈치 않았는데, 긴 바람 불어와 그만 바닷가에 떨어뜨렸네.”라고 하였다.)

위 인용문은 9월 24일 이경석이 장안사에서 혈성루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 그 분량이 6쪽에 이른다. 장편의 산문 서술이 이어지는 동안 작자는 장안사-명담-백화암-표훈사-정양사-혈성루 등 다양한 장소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모두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시에서는 혈성루에서 바라본 석양이 지는 순간적인 풍경만을 읊었을 뿐이다. 시에서 극히 부분적인 것만을 이야기함으로써 시와 산문 서술 간의 서술 시간 측면에서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시를 읊은 뒤에도 작자는 그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산문을 통해 유기적 서술을 이어가고 있다.

7) 李景奭, 『白軒集』 권10, 詩稿, 「楓嶽錄」, “二十四日朝後, 自長安到鳴潭……行二里許, 有白華庵, 北有西山浮屠碑銘, 卽月沙相公所撰, 東陽尉書之……寺之正堂, 名以般若, 曹公友仁所書云……由表訓上二里許, 卽正陽寺也, 去長安寺十里餘, 寺在放光臺下……正陽東禪堂之東有小樓, 名曰歇性……余初登此樓, 不覺眼豁而神爽. 已而夕陽橫照, 山色益明, 又不可以言語形容也. 謾吟一絕曰: ‘天上仙娥萬二千, 霓裳舞罷廣寒前, 白玉高簪慵不整, 長風吹落海雲邊.’” 본고에서 인용된 이경석의 「풍악록」 번역은 다음의 번역본들을 참고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자가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김동주 편역, 『금강산 유람기』, 전통문화연구회, 1999.; 사회과학원 편역, 『금강산기행문』(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2004.; 이경수 외 편역,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0.) 또 본고에서 앞으로 「풍악록」을 인용할 때는 출전 표시를 생략한다.

승려들이 말하길, “이 산의 경치는 봄과 가을에 가장 뛰어난데, 가을이 봄보다 낫습니다. 상국(相國)께서 찾아주시어 이 산중에서 뵙게 되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다만, 늦게 오신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다음의 변변치 못한 시 두 수를 지어 답하였다. (중략)

玉骨浮空霽色新	옥골 같은 산봉우리 허공에 떠 있으니 맑은 산 빛 새롭고
九秋霜後更精神	가을 서리 내린 뒤라 정신은 더욱 맑아지네.
花紅葉赤渾爲假	꽃 붉고 잎 붉은 건 모두 참모습 아닐지니
無葉無花始是真	있도 없고 꽃도 없어야 비로소 진면목이라네.

나의 이 말은 비록 우스갯소리 같지만 또한 사실을 말한 것이다. 꽃이 붉게 피면 변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초목이 무성하고 단풍이 붉게 물들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지와 잎이 모두 뒤덮게 된다. 암석의 기이하고 울퉁불퉁한 바위의 참모습은 서리가 내린 뒤에야 모두 드러난다.⁸⁾

이경석이 단풍이 다 지고난 후에야 금강산에 오게 된 것을 중들이 아쉬워하자, 이에 대해 이경석은 자신이 생각하는 금강산의 진면목이란 단풍에 가리지 않고 바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시를 통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뒤에서 앞의 시에 담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보충 설명하면서 산문 서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작자가 산문 서술의 유기적 흐름을 인식하며 글을 써내려갔기에, 혹 삽입시 전체를 생략한 채 산문 서술만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의 ‘山水遊記’ 성립이 가능할 만큼 「풍악록」에 있어서 산문 서술은 또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는 작자가 산문서술 전체의 유기적 흐름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8) “僧輩曰, ‘此山之景, 春秋爲最, 而秋勝於春. 山中得見相國之來, 幸莫大焉, 而只恨其晚也.’ 余以拙絕二首答之曰, ……玉骨浮空霽色新, 九秋霜後更精神, 花紅葉赤渾爲假, 無葉無花始是真. 余之此語, 雖似調戲, 而蓋亦紀實也. 花之紅也, 非不繁華, 而草樹始茂, 楓之赤也, 非不清麗, 而條葉掩翳. 巖奇石瘦之真狀, 則畢露於霜落之後.”

의미한다. 이러한 까닭에, 산문서술을 단지 시를 위한 보충적 성격을 지닌 ‘시서’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내용의 비중 면에서 「풍악록」의 산문 서술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는 그 중 인상적인 부분만을 읊고 있다.

신은경은 산·운 혼합담론을 시와 산문 중 어느 쪽이 주가 되는가, 텍스트에서 시의 위치가 고정적인가 유동적인가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유형을 ‘序附加型’, ‘列傳型’, ‘詩插入型’ 등 6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⁹⁾ 이 중 ‘시삽입형’은 운문이 어느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삽입되어 있으며, 산문과 운문은 내용상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중복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행문학에서 나타나는 산·운 혼합담론이 이에 속한다.¹⁰⁾ 신은경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풍악록」은 시와 산문 중 산문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시는 그 중에서도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삽입형’의 ‘산주운중’의 형태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¹¹⁾

본격적으로 삽입시의 성격을 살펴보기에 앞서 「풍악록」 산문 서술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풍악록」의 산문은 전반적으로 금강산 유람 일정에 따르고 있으며, 이경석은 자신의 견문을 간결한 문체에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경석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술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지는 않았다. 이는 어디까지나 경험의 사실적 기술과 정보 전달이라는 교술성에 충실하고자

9) 신은경, 「산·운 혼합담론의 유형과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0) 신은경, 같은 논문, 2008, p.298.

11) 『백현집』의 분류와 달리, 여러 문인들의 금강산 문학작품을 선정해 수록한 『와유록』(장서각본), 일제강점기 和田 一郎(다나카 이치로)가 조선의 역대 금강산 문학작품을 총망라하여 엮은 『金剛山集』(국립중앙도서관본)에서도 「풍악록」을 산수유기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번역본에서도 이경석의 「풍악록」을 기행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목격되는 점 역시 이경석의 「풍악록」이 산문 중심의 시삽입형 작품임을 뒷받침해준다.

하는 작자의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훈사를 지나 돌아서 만폭동으로 들어갔다. 높은 봉우리와 절벽이 골짜기를 끼고 양쪽에 서 있었다. 어지러운 돌과 겹겹의 바위에 긴 시냇물이 이리저리 흐른다. 1리쯤 가서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봉래풍악원화동천” 큰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 바로 양봉래의 초서이다. 반석 아래에 두 냇물이 합쳐 흐르는데 하나는 북쪽 원통동으로부터 흘러 반석 위에 이르러 하나의 누워있는 폭포의 형상을 이루었다. 이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화룡담에 곧장 도달할 수 있다. 골짜기에는 금대 및 능인암, 진불암, 선암암, 가섭암 등의 암자가 있고 또 수미대가 있다. 진불암 앞에는 저절로 만들어진 탑이 있다. 원통암에는 중이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비었다. 다만 선암굴에만 중 하나가 와서 거처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한 냇물은 동북쪽 마하연 동구로부터 흘러온다. 나는 반석 위에 앉아서 쉬었다. 천오와 의웅이 따라와 서쪽으로 절벽 꼭대기에 마른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것이 학대입니다. 옛날에 청학, 백학, 두 학이 그 위에 등지를 틀었는데 때때로 피리소리가 들리면 두 학이 반공에 훨훨 솟아올라 날면서 춤을 춥니다. 임신년 무렵에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¹²⁾

위 인용문은 만폭동에 들어선 작자가 보고 들은 것을 서술한 부분이다. 만폭동에서 볼 수 있는 양봉래의 글씨와 계곡 등의 경물을 서술하고 원통암과 선암굴 등 근방에 위치한 암자의 위치와 작자가 도착했을 때의 정황 등을 설명하였다. 경물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까지는 보이지 않으며, 일정에 따른 자신의 견문을 간결한 문체에 담아내고 있다. 또한 길을 안내하는 승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하고 특정

12) “由表訓寺，轉入萬瀑洞。層巒絕壁，挾洞而立，亂石重巖，長川散流。行一里許，有盤石，石上有蓬萊楓嶽元化洞天八大字之刻，乃楊蓬萊之草書也。盤石之下，兩川合流，其一則北自圓通洞中而流，到盤石上作一臥瀑之狀。由此洞而上則可以徑達於火龍潭之上。洞有金臺及能仁眞佛船巖迦葉等庵。又有須彌臺。眞佛之前，有天成之塔。圓通有僧，餘皆空。唯船巖窟，有一僧來住云。其一川則自東北間摩訶衍洞口而流。余坐憩盤石上，天悟，義雄等隨之。西指絕壁層巒枯松立處而言曰，‘此鶴臺也，古有青白兩鶴巢其上，時聞玉笛之聲，則兩鶴翱翔飛舞半空。壬申年間飛去不返云。’”

명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명소에 얽힌 전설 등을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의론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펼쳐내지는 않았다.¹³⁾

이처럼, 이경석은 「풍악록」의 산문 서술에서 어디까지나 견문의 사실적인 측면을 간결히 기술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칫 「풍악록」의 산문 서술이 다른 유산기와 비교하여 상당히 평이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풍악록」의 삽입시는 산문의 이러한 성격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실의 객관적인 기술 보다는 작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풍악록」 산문 서술의 부족한 부분을 삽입시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3)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악록」의 산문 서술이 ‘객관적 서술태도에 가깝다’는 것이지,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원의 경우, 그 역시 이경석과 마찬가지로 승려에게 금강산에 사는 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학을 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유금강록」에서 단지 승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본 학의 모습을 임포의 『학보』에 기록된 학의 형상과 직접 비교해 진위여부를 살핀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의론을 풀어나갔다. 이외에도 「유금강록」에서는 괴력난신에 대해 유교적 시각에서 그 진위 여부를 따진 뒤 이를 바로잡으려는 작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자주 엿보이며, 수시로 자신의 철학에 따른 의론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였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점을 「유금강록」의 큰 특징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유금강록」을 통해 이원의 산수의식과 사상적인 측면을 구명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김보경, 「『遊金剛錄』에 나타난 再思堂 李蘊의 산수 인식과 그 정신사적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이훈, 「再思堂 李蘊의 산수 유람관과 『遊金剛錄』 연구」, 『강원문화연구』 제26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또한 윤희(尹鑄)는 그의 「풍악록」에서 이경석처럼 시와 산문을 함께 기록하였는데, 그 역시 산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편이다. 필자는 이러한 작품들에 비해 이경석이 자신의 주관을 강하게 표출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객관적인 기술태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Ⅲ. 삽입시의 양상과 그 효과

1. 다양한 정감과 의론의 표출

한시는 장르적 특성상 산문 서술과 비교하였을 때 작자의 개인적 정감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경석의 「풍악록」에서는 산문 서술이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정감을 표출하는 역할은 삽입시가 담당하고 있다. 이경석은 금강산 유람을 하는 동안 느꼈던 다양한 감정과 자신이 품었던 생각을 삽입시를 통해 표현하였다. 그 중에는 유람의 설렘과 아쉬움 등 작자의 감정을 표출한 작품들이 있으며, 교유맥락에서 이루어진 시작도 다수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의론적 성격의 삽입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산문 서술로 상황을 서술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정감 및 의론을 삽입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 결과 산문 서술의 상황적 맥락과 관련하여, 그 속에서 느끼는 작자의 심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문학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경석은 금강산 유람 과정에서 느낀 기쁨과 아쉬움 등 다양한 감정을 시로 담아 유산기 서술의 중간 중간에 삽입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간과 상황적 배경 속에서 작자가 느낀 순간적인 감정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이경석이 장안사에 막 도착한 순간의 감흥을 표현한 부분이다.

이 날 바람은 산들 불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날씨는 맑고 산뜻하여 한 점 구름도 없었다. 절 앞쪽으로는 모든 봉우리들이 빙 둘러서서 팔을 끼고 읍을 하고 있는 듯했다. 기분이 좋아 다음과 같이 시를 썼다.

身到仙區宿願諧 이 몸이 선경에 와 숙원을 이루었으니

水雲隨處爽襟懷 곳곳의 물과 구름에 가슴 속까지 상쾌하구나.
 山靈定識吾行色 산신령도 내가 온 줄을 아는지
 暖日微風氣更佳 따뜻한 햇살 잔잔한 바람 날씨 더욱 좋구나.¹⁴⁾

여기서 ‘선경[仙區]’은 속세를 벗어난 금강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이 갓 도착한 장안사를 이르는 말이다. 작자는 꿈에 그리던 곳에 유람을 와 비로소 평생의 숙원이 해소되는 듯한[宿願諧] 환희를 느꼈다. 또 주변의 흐르는 계곡물과 하늘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구름을 따라 이리저리 거닐며 가는 곳마다 가슴 속까지 탁 트이는 상쾌함[爽襟懷]을 느꼈다. 게다가 잔잔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은 유람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기에, 마치 산신령이 자신의 유람을 반겨 환영해주는 듯 느꼈다. 금강산에 온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즐거운데, 이에 더하여 날씨까지 자신의 유람을 도와주었으므로 그 만족감과 환희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경석은 산문을 통해 서술한 상황을 다시 시적 감흥을 통해 부연하였다. 이 때, 산문 서술에서 “바람은 산들 불고 햇살은 따뜻하다 [風微日暖]”고 언급한 상황을 시 속에서도 그대로 표현하여 순간의 기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자신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을 더 보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산신령이 자신이 온 것을 알아보고 화창한 날씨를 가져다 준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문학적 낭만성까지 가미하였다. 산문 서술에서 이미 “기분이 좋아졌다[喜]”고 언급한 바, 이와 같은 정서를 삽입시를 통해 독자에게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또 이 삽입시를 유산기와 별도로 독립적인 시작으로만 보는 경우, 단지 산에서의 기쁨을 이야기 하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선행하는 산문 서술에 제시된 구체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보면, 특정 공간과 상황 속에서 작자의 심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경석은 금강산을 내려갈 때의 아쉬운 감정 역시

14) “是日風微日暖，天氣晴朗，無一點雲。寺前諸峯環列，如拱揖然。志喜曰，身到仙區宿願諧，水雲隨處爽襟懷，山靈定識吾行色，暖日微風氣更佳。”

삽입시를 통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드러내었다.

나는 정양사에서 내려올 때에 멀리서 봉우리들을 바라보고, 다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다.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떠나움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한참 동안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지었다.

爲住歸筇別洞天	돌아가는 지팡이 멈춰 선계 이별 하려는데
水聲雲影總依然	물소리 구름 그림자는 그저 의연하구나.
裝囊點檢無他物	짐 보따리 점검하니 다른 물건은 없고
白玉峯巒萬二千	백옥 봉우리 만 이천 개 뿐이라네. ¹⁵⁾

금강산 정양사에서 일만 이천 봉우리의 절경을 감상한 뒤, 다시 산을 내려가 골짜기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경석은 문득 이 뛰어난 경치를 뒤로 하고 떠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아쉬움의 마음을 담아 시를 읊었다. 1·2구의 내용은 금강산의 절경을 뒤로하고 내려가는 상황적 배경을 설명한 부분으로, 산문 서술의 내용과 어느 정도 중첩되고 있다. 2구의 “물소리와 구름 그림자[水聲雲影]”, 4구의 “백옥 봉우리 만 이천 개[白玉峯巒萬二千]”를 직설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발걸음을 붙잡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산문의 서술보다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계를 이별하려는 작자의 아쉬움과 이에 아랑곳없는 자연의 無情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어 절경을 두고 떠나는 작자의 아쉬운 심정을 더욱 극대화시켜준다. 3·4구에서는 여정이 끝나감에 따라 행랑 속에 담아온 것들은 모두 비워지고, 그 대신 금강산의 아름다운 일만 이천 봉우리로 가득 채웠다는 표현을 통해 산을 내려가는 작자의 심정을 참신한 서정으로 묘사하였다. 산을 내려가는 상황에서 전개되는 빠른 템포의 산문 서술을 잠시 멈추고, 금강산과 이별해야 하는 시점에서 느끼

15) “余自正陽下時，望見群峯，且入洞裏，依依有惜別之懷，良久踟躕，遂賦一絕曰，爲住歸筇別洞天，水聲雲影總依然，裝囊點檢無他物，白玉峯巒萬二千。”

는 아쉬움의 감정을 삽입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순간의 서정을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경석은 유람의 여정 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맺었으며, 이들에게 지어준 시를 빠짐없이 자신의 기행문에 삽입하였다. 그는 만남의 기쁨, 헤어짐의 아쉬움, 감사의 마음 등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타인과 공유하는 가운데 느끼는 감회를 시를 통해 표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작자의 정감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친교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

천오(天悟)가 길 왼편에서 맞이했는데, 곧 송월(松月)의 제자이다. 천오는 일찍이 을유년(1645년)에 그의 스승의 비문을 얻으려고 정릉동의 집으로 나를 찾아왔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금강산은 내가 마음속으로 가서 구경하고 싶다고 여긴지 이미 오래되었소. 조만간에 몸소 가서 보아야겠는데, 그 때 만나기로 합시다.”라 하였다.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도리어 잊어버렸는데, 천오는 아직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중략) 그리고 나서 그와 더불어 서쪽 승방에서 함께 잤다. (중략)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냇물소리는 빗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했다. (중략) 다시 절구 한 수를 지어 천오 법사에게 주었다.

秦川一面夢依然	옛날 진천에서 만났던 일 꿈속에서도 여전한데
伴宿禪房亦夙緣	선방에서 함께 자니 이 또한 오랜 인연이네.
枕上寒泉聲似雨	베개 머리 찬 샘물소리 빗소리 인가하여
起看明月滿山前	일어나 보니 밝은 달빛만 온 산에 가득하구나. ¹⁷⁾

16) 신은경은 산·운 혼합담론의 한 유형으로서 기행문에 삽입된 시의 제 기능과 그 특성을 밝힌바 있다. 그는 야콥슨의 여섯 가지 의사전달모델(발신자, 수신자, 전언, 약호, 관련상황, 접촉)에서 어느 요소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그 기능과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기행문의 삽입시에 적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시를 통해 타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양방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들어 ‘친교적 기능’이라 명명하였다. (신은경, 「기행문의 삽입시 연구」, 『동양학』 4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9.)

산문 서술에서 작자는 금강산에서 만난 천오라는 승려와의 옛 사연을 기록하고 있다. 또 그와 함께 장안사 승방에서 잠든 날 밤 유독 시냇물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는데, 작자는 빗소리인가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으나 비가 내리기는커녕 온통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금강산의 산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 시를 통해 앞서 서술된 천오와의 기이한 인연과, 금강산에서 그와 재회한 날 밤 함께 경험한 금강산의 절경을 요약적으로 묘사하였다. 산문을 통해 서술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느낀 정감의 핵심이라 할 만한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문에 제시된 작자와 대상 인물과의 각별한 인연에 대한 설명은 삽입시의 배경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만남과 헤어짐의 정감을 드러내는 친교 목적의 시 외에도 이경석은 자신의 의론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삽입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승려들이 말하길, “이 산의 경치는 봄과 가을에 가장 뛰어난데, 가을이 봄보다 낫습니다. 상국(相國)께서 찾아주시어 이 산중에서 뵈게 되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다만, 늦게 오신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다음의 변변치 못한 시 두 수를 지어 답하였다. (중략)

玉骨浮空霽色新	옥골 같은 산봉우리 허공에 떠 있으니 맑은 산 빛 새롭고
九秋霜後更精神	가을 서리 내린 뒤라 정신은 더욱 맑아지네.
花紅葉赤渾爲假	꽃 붉고 잎 붉은 건 모두 참모습 아닐지니
無葉無花始是真	잎도 없고 꽃도 없어야 비로소 진면목이라네.

17) “天悟迎謁于路左，卽松月應祥弟子也。悟也曾於乙酉年，爲其師求碑文，訪余於貞陵洞家，余謂師曰，‘金剛吾以心往賞已久矣。早晚當身親見之，可相期於此也。’余言之而旋忘之，悟也尙能記誦此言……因與之同宿於西僧堂……夜深無睡，戶外川聲，如雨如風……又以一絕，贈悟師曰，秦川一面夢依然，伴宿禪房亦夙緣，枕上寒泉聲似雨，起看明月滿山前。”

나의 이 말은 비록 우스갯소리 같지만 또한 사실을 말한 것이다. 꽃이 붉게 피면 변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초목이 무성하고 단풍이 붉게 물들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지와 잎이 모두 뒤덮게 된다. 암석의 기이하고 울퉁불퉁한 바위의 참모습은 서리가 내린 뒤에야 모두 드러난다.¹⁸⁾

위 인용문에서는 우선 전반부의 산문 서술을 통해 삼입시가 지어진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금강산은 특히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경석을 안내하던 두 승려는 그가 단풍이 다 지고 나서야 뒤늦게 금강산에 온 탓에 절경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탄식하였다. 그러자 이경석은 두 승려의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시를 통해 전달하였다. 옥을 깎아낸 듯한 앙상한 모습의 봉우리가 확연히 허공에 높이 솟아 드러난 것이야말로 산의 경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늦가을 서리 때문에 서늘해진 공기에 오히려 정신까지 맑아지는 듯 상쾌하니, 이것이야말로 작가가 생각하는 금강산의 진면목이라는 것이다. 알록달록한 봄꽃과 울긋불긋 물든 가을 단풍[花紅葉赤]은 금강산의 절경 중에서도 최고라 하지만, 이는 오히려 겉꾸밈이라 하였으며, 금강산의 진짜 모습을 가린 거짓[假]이요, 꽃과 단풍이 다 지고 난[無葉無花] 뒤 드러난 지금의 광경이 금강산의 진면목[眞]이라 하였다. 작자는 시에서 ‘花紅葉赤: 無葉無花’와 ‘假:眞’의 대우를 통해 금강산의 두 가지 풍광이 보여주는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간결한 대구는 산문 투의 서술로 길게 늘여서 설명하는 것 보다 오히려 금강산의 진면목에 대한 작자의 생각을 상대방(두 승려)과 독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문서술을 통해 재차 시에 담긴 자신의 의론

18) “僧輩曰, ‘此山之景, 春秋爲最, 而秋勝於春. 山中得見相國之來, 幸莫大焉, 而只恨其晚也.’ 余以拙絕二首答之曰, ……玉骨浮空霽色新, 九秋霜後更精神, 花紅葉赤渾爲假, 無葉無花始是眞. 余之此語, 雖似調戲, 而蓋亦紀實也. 花之紅也, 非不繁華, 而草樹始茂, 楓之赤也, 非不清麗, 而條葉掩翳. 巖奇石瘦之眞狀, 則畢露於霜落之後.” (이 부분의 원문에는 실제 삼입시가 두 수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을 풀어 보충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는 삽입시와 전후 산문 서술의 상호 조응이 가장 잘 이루어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삽입시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유람의 설레임, 금강산을 떠나는 아쉬움, 특정 인물에 대한 정감 등은 다른 금강산 유람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문학적 소재들이다. 그러므로 이경석의 「풍악록」에 삽입된 시들을 삽입시가 아닌 독립적인 개별 작품으로 본다면 상당히 평이한 시작이라 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악록」은 동일 여정을 대상으로 산문과 시를 한 작품 안에 번갈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전략적 효과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유산시 작품들에서는 전체적인 여정의 맥락이 생략된 채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여정의 순서대로 시작품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독립된 유산시에서는 그 시가 어느 공간과 어느 상황, 어떠한 맥락에서 지어진 것인지 파악하기 힘든 것이 보통이다. 산수를 유람하고 지은 시들의 경우에는 특정 공간 및 상황 속에서 느낀 특별한 감흥을 서술하거나 묘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때 상황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적 정취에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보통의 유산시는 산문으로 여정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간결한 문체로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서술 및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사람의 정감을 표현하기에 산문보다 시를 더 효과적인 장치로 보았던 것은 옛 문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이었기에, 산문으로는 이를 여실히 표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많은 문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산수 유람을 별도의 시와 기문으로 함께 남기거나, 시에 시서 혹은 주석을 첨부하거나, 장형표제를 통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등 산문과 운문의 기능을 보완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와 같이 유산시나 유산기가 지니는 일정한 한계를 인식한 데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¹⁹⁾ 이경석의 「풍악

19) 한시의 장형표제나 여타 부성분들(并序, 題後, 題注 등)의 성격에 대한 것은 다음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신은경, 「한시의 장형표제에 대한 문체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록」은 애초에 한 작품 안에 기문과 삽입시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유람의 여정이나 문학적 서술 및 묘사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장형표제 및 시서나 주석과 같은 별도의 보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풍악록」에서는 산문서술을 통하여 주로 유람의 여정과 상황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서술 속에서 자연스럽게 삽입시를 통해 특정 순간에 촉발된 작자의 감흥과 서정을 보다 집중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²⁰⁾ 궁극적으로 시와 산문이 지니는 저마다의 특징을 상보적으로 활용하여 「풍악록」이라고 하는 산·운 복합형의 금강산 유람록을 만들었다고 하겠다.

2. 상상력을 통한 낭만적 묘사²¹⁾

금강산 기행문학은 작자에 따라 그 서술 및 묘사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인상적인 자연 경물의 객관적인 묘사에 비중을 두는 작자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는 자신의 정감과 흥취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 전기의 금강산 유기에서는 비교적 산수 유람을 통하여 ‘철학적 이치’를 궁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작자의 의론을 담고 있는 서술이 많았다.²²⁾ 남효운, 이원, 정엽 등의 금강산 유기가 이러한

20) 산문 서술 속에 시를 짓는 배경과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시서나 장형표제의 기능과 다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시서나 장형표제, 주석이 있는 기행시는 작시의 상황파악은 가능하게 하지만, 결국 단편적인 작품군으로서 각 작품 간의 맥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풍악행」은 주석이나 시서 혹은 장형표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건의 순서에 따른 유기적 서술 가운데 시를 삽입하고 있어, 산문과 시의 보완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여기서 낭만적 묘사란, 신선 흥취를 통한 낭만적 세계로의 묘사를 넘어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상상력을 통해 금강산을 새로운 공간으로 참신하게 재구성 했다는 의미에서 ‘낭만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22)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관료문인의 산수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5.

예에 해당한다. 반면에, 조선 후기에는 김창협을 비롯한 노론계 문인들은 작자의 의론이나 주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산수 경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진경문학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³⁾

이경석의 「풍악록」에 수록된 시들은 금강산 경물의 객관적 묘사보다는 정감 표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 전기 도학자들과 같이 의론적 성격이 다분하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경석은 「풍악록」을 마무리하면서 작품의 맨 끝에 자신의 금강산 유람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제시해 놓은 바 있다.

나의 경우도 또한 한 사람의 유상객(遊賞客)이니 어찌 감히 인자(仁者)와 지자(智者)의 즐거움에 견주어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군자가 산수를 구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의 풍광과 물소리 너머에서 스스로 터득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호탕하고도 힘이 있게 위와 아래가 서로 통하는 경지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즐거움이다.²⁴⁾

이경석은 위 글에서 자신을 한 사람의 遊賞人 즉,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기는 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경물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는 데에만 유람의 의미를 두지는 않았으며, 산수 풍광과 물소리 같은 眞景의 면모 너머로 무언가를 느끼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조선 전기 유기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은 철학적 이치를 탐구하고자 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그는 자신이 樂山樂水의 철학적 경지를 감히 논할 정도는 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결국, 이경석은 금강산 유람에서 굳이 심오한 철학적 이치를 궁구하는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경물의 완상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강혜선, 「17·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24) “如余者亦一遊賞之人也, 何敢與論於仁智之樂哉. 然而君子之觀山水者, 必有自得於山光水聲之外者, 浩浩然潑潑然, 有以見其上下流通之境, 則其爲樂也.”

그리고 이것은 「풍악록」 전반에서 보이고 있는 속세를 초월한 신선 낭만적 흥취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풍악록」에서는 삼입시를 통해 금강산의 경물을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묘사가 아닌, 상상력을 동원한 환상적인 표현이나 신선세계로 묘사하여 유람의 흥취를 표출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이경석이 금강산 유람을 통하여 선계의 낭만적인 흥취를 몸소 체험하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풍악록」의 이러한 성격은 17세기 전반기 관료문인들의 유산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17세기 전반기 관료문인들의 유산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서술특징은, 산수에서의 경험을 ‘선계’라는 이상향으로 바라보고 그 신이한 체험과 정신적 흥취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⁵⁾ 이정구, 신익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산수자연을 바쁜 공무와 일상의 고됨에서 탈출하여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세속의 그물에서 벗어나 신선과 같은 한가로움과 풍류를 즐기고 싶은 욕구를 유독 서술 속에 강하게 드러내었다.²⁶⁾

이경석 역시 영의정이라는 고위 관직을 지냈던 인물이다. 강혜선(2006)에 의하면, 이경석이 한창 관직에 머물던 시절의 시는 전쟁의 참상과 안타까움, 유배 생활 중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 등 현실적인 것을 소재로 한 시가 많았다. 반면 관직을 치사한 이후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의 시작들은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심사를 노래한 경향이 많았다.²⁷⁾ 「풍악록」의 상상력을 통한 낭만적 표현들의 시 경향 역시 관료 생활 때 지은 시들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며, 말년

25) 노경희, 앞의 논문, p.49.

26) 李廷龜, 『月沙集』 卷38, 記部, 「遊金剛山記下」, “踰鐵伊峴, 過一大野, 卽長安洞, 水益清石益白山益奇, 已非人間景色.”; 申翊聖, 『樂全堂集』 卷7, 記部, 「遊金剛小記」, “萬景臺, 卽外山之最高峯, 東臨滄海, 海天一色. 指點三山十洲, 飄然有乘雲之意. 苟中郎登北固望海, 謂秦漢之君, 必褰裳濡足, 若令苟公臨此地, 當作如何觀也.”

27) 강혜선, 앞의 논문, pp.27-32.

의 시적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경석은 淸朝에 의해 억류당하는 고난까지 겪어야 했다. 억류에서 풀려난 직후 떠나게 된 금강산 유람이니 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 유람은 특별한 것이었다.²⁸⁾ 그러기에 더욱이 이경석에게 있어서 금강산 유람은 선계의 유람과 동일시 될 수 있었고, 금강산의 풍광에 대한 그의 묘사는 사실적 묘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생환의 감동에서 비롯된 그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흥취가 투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풍악록」에서 이러한 신선 낭만의 흥취는 삽입시를 통해 두드러진다. 사실적인 산문 서술에 비해 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한시는 같은 경물이나 상황·느낌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느낌을 연출하기 마련이다. 이경석은 이러한 한시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문학적 표현기법을 통해 삽입시에 자신의 주관을 투영시켜 금강산을 환상적 공간으로 다시 그려냄으로써,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신의 흥취를 함께 담아내는 효과를 이루어냈다. 이어질 「풍악록」의 예시들을 통해서 경물에 대한 객관적인 산문 서술과 이를 문학적 표현기법과 재치로 색다르게 그려낸 삽입시의 서로 다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목천으로부터 골짜기로 들어갈 때에 한 줄기 긴 내를 바라보니, 빙글빙글 돌아서 골짜기 어구로 흘러나갔다. 바위로 된 골짜기는 매우 기이하였다. 입으로 절구 한 수를 읊었다.

歷踏煙霞路不迷	연하를 밟아가니 길 헛갈릴 일 없고
洞深風露轉淒淒	골짜기 깊으니 바람과 이슬 더욱 쌀쌀해지네.
峯回未得藏流水	봉우리가 둘러서도 흐르는 물 감추지 못하니
暗洩仙區是此溪	암암리에 선구 누설하는 건 바로 이 냇물이라네. ²⁹⁾

28) 이경석은 「풍악록」 뒷부분에서 금강산 기행 이전에 청에 볼모로 억류되어 있었던 사정을 되새기면서 다시 살아 돌아와 금강산 유람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임금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 감회를 얘기한 바 있다.

29) “自梧木入洞時，見一道長川，逶迤回轉，流出谷口，巖壑頗異，口號一絕曰，歷踏煙霞路不迷，洞深風露轉淒淒，峯回未得藏流水，暗洩仙區是此溪。”

위 인용문은 오목천 기슭을 따라 단발령으로 가는 여정에 관해 이야기한 부분이다. 이경석은 오목천의 냇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다음에 오는 절구시 역시 내용면에서는 같은 경물을 읊은 것이나, 표현 면에서 느낌이 사뭇 다르다. 단지 눈에 비치는 경물의 모습을 넘어서 바람과 이슬, 그리고 쌀쌀해지다[淒淒]라는 시어가 깊은 골짜기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3·4구에서는 큰 바위와 봉우리로 형성된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의 형상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흥미롭다. 둘러선 봉우리[回峯]라는 명사형이 아닌, 봉우리[峯]를 주어로 하여 둘러섰으나[回] 감추지 못했다[未得藏]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봉우리가 의지를 지닌 존재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봉우리가 의도적으로 계곡을 둘러싸고, 흐르는 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처럼 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 없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계곡물을 작자는 또 상상력을 발휘하여 신선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냇물로 미화시켜 선계를 누설한다.[暗洩仙區]고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 같은 경물을 두고도 객관적인 산문 투로 서술한 경우와, 수사법을 절묘하게 활용하여 시로 표현한 경우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산 입구인 단발령 계곡으로 들어서며 잠시 서술을 멈추고는 그 순간에 집중하여, 마치 속세와는 떨어진 별세계로 진입한 것과 같은 작자의 황홀한 기분을 한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혈성루에서 바라본 석양이 비치는 광경을 이야기한 부분이다.

혈성루에 처음 올랐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이 트이고 정신이 상쾌하였다. 이윽고 석양이 가로 비껴 산 빛이 더욱 밝아졌는데 그 경치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절구 한 수를 지어 읊었다.

天上仙娥萬二千 만이 천명의 하늘나라 신녀들
霓裳舞罷廣寒前 날개옷 차려입고 광한전 앞뜰서 춤 마치고는

白玉高簪慵不整 높이 꽂은 옥비녀를 아직 정돈치 않았는데
長風吹落海雲邊 긴 바람 불어와 그만 바닷가에 떨어뜨렸네.³⁰⁾

금강산 일만 이천봉 사이로 석양이 지는 기막힌 경관을 앞에 두고 절로 나오는 감탄과 높은 흥취를 이경석은 산문적 서술로는 차마 실감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경석이 빼어난 경치 묘사와 흥취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삽입시의 효과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를 7언의 절구시로 대신하였는데, 이때 단순히 객관적으로 경물을 묘사하기 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춤을 추던 선녀들이 떨어뜨린 옥비녀로 미화시켰다. 그리고 선녀들이 바람결에 옥비녀를 바다에 떨어뜨렸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석양이 바다 끝 수평선 너머로 비껴가는 풍경 속에 한층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일만 이천 봉우리의 경치를 천상에 비유하여 그려내었다. 이는 작자가 기막힌 상상력을 통해 석양이 지는 순간의 경치와 자신의 흥취를 시 속에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자의 이런 낭만적인 상상과 표현법은 만폭동에서 더욱 절정을 이루게 된다.

天上白玉京	하늘나라 백옥경에
浩浩銀河流	은하수가 유유히 흘러가니
銀河廣且長	은하수는 넓고 또 길어
歲歲愁牽牛	해마다 견우를 시름겹게 하네.
欲渡嗟未易	건너보려 애쓰나 하지 못하고
牛郎訴玉皇	견우는 옥황에게 하소연하네.
玉皇爲之感	옥황상제 이를 안타까이 여기어
呼龍起東方	용을 불러 동방에서 일으켰도다.
雷霆動白日	맑은 대낮 뇌성벽력 일며
一派銀河決	한 줄기 은하가 터져 나와

30) “余初登此樓，不覺眼豁而神爽。已而夕陽橫照，山色益明，又不可以言語形容也。謾吟一絕曰，天上仙娥萬二千，霓裳舞罷廣寒前，白玉高簪慵不整，長風吹落海雲邊。”

注向衆香城	중향성으로 쏟아져 내려
玉洞兩分裂	옥 골짜기 두 갈래로 갈라졌네.
長川作雙流	긴 천은 쌍쌍이 흘러나가고
隱隱白虹起	은은한 흰 무지개 일어나
渟爲百丈潭	고인 물은 백 길의 소가 되고
懸爲萬瀑水	절벽에 걸려 만 개의 폭포가 되었구나.
紛紛噴冰雪	어지러이 뿜어 나오는 눈꽃들
瀰瀰鳴玦環	쨍쨍 흐르는 물은 옥구슬 떨어지듯
東西挾絕壁	양 옆으론 절벽을 끼고 있고
白石散其間	흰 돌은 그 사이에 널려 있네.
上有千仞臺	높은 곳엔 천인대 있어
兩鶴曾此棲	두 학이 옛날 등지를 틀었다지
靑白共相和	청학 백학 함께 화목하게 살아
飛翔輒與齊	자주 함께 하늘을 날아다녔네.

(후략)

이 시에 앞서 이경석은 만폭동 계곡을 따라 걸어가며 눈에 보이는 주변 경물과 승려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산문을 통해 서술하였다. 이 서술은 주로 시선을 빠르게 옮겨가며 객관적인 자세로 지리적 정보를 서술하는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 후 이경석은 취흥이 오른 상태로 즉흥시를 써 내려갔다. 그는 만폭동에서 보았던 수많은 폭포와 물줄기, 희고 편평한 바위들과 계곡을 둘러싼 봉우리, 청학대 등을 긴 편폭의 시에 두루 담아내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작자는 만폭동의 실제 경물을 소재로 삼되 이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자신만의 낭만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그려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우선 시의 초반에 천상세계를 연상시키는 백옥경과 옥황상제, 그리고 은하수를 건너고자 하는 견우를 등장시켜 만폭동이 생겨나게 된 상황을 환상적으로 설정하였다. 옥황상제가 견우를 위해 동방의 용을 불러일으키자 은하수가 금강산 중향성을 타고 쏟아져 내리게 되었다는 발상은 매우 기발하다. 중향성을 타고 떨어져 내린 은하수의 물줄기는 계곡을

이루어 만 갈래의 폭포 즉, 만폭동이 되었다. 이리저리 튀는 물방울은 눈꽃으로,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옥이 굴러가는 소리로, 사방에 널린 바위는 하얀 백옥으로, 천인대에 살았다는 한 쌍의 학은 신령스런 학으로 미화시켜 금강산을 인간세계와 구별되는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경석의 「풍악록」에 삽입된 만폭동 시의 환상적이고 개성적인 묘사는 진경시로 대표되는 김창협시 만폭동 시와 비교했을 때 그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난다.

靈山關紫洞	신령한 산속에 신선골짜 열렸으니
合沓千萬重	천만 겹 산봉우리 에워싸였네.
高厓上雲漢	높은 벼랑 은하수로 치솟았고
綠蘿垂青楓	녹색 덩굴 푸른 단풍 드리워졌네.
噴薄數十潭	힘차게 뿜어대는 수십 개 못물
如行三峽中	마치 내가 삼협 속을 걷고 있는 듯.
聲搖銅柱窟	물소리는 보덕굴을 흔들여 대고
影動香鑪峯	물에 어린 향로봉은 일렁거리네.
五月失火雲	오월에도 더운 기운 전혀 없고
飛雪若大冬	백설 같은 폭포수 한겨울 같네.
清颯灑不歇	시원한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오니
肅肅留寒松	서늘함은 소나무에 머물러 있네.
我來濯塵熱	이곳에서 세속 더위 씻어버리니
高興彌蒼穹	높은 흥취 창공까지 뻗히는구나.
泉源弄珠璧	상류 물에 구슬방울 희롱하고
木末攀芙蓉	가지 끝의 목련꽃을 꺾어 드누나.
矯首望永郎	고개 들어 영랑봉 우러러보고
幽歌感潭龍	그윽한 노래로 못 속 용을 감동케 하네.
歸時日已晚	돌아갈 때 해는 벌써 저물어가고
雨下金臺東	금대 동쪽 하늘에선 비를 뿌리네. ³¹⁾

31) 金昌協, 『農巖集』 卷2, 詩部, 「萬瀑洞」.

김창협 역시 첫 구에서 금강산을 신령한 산[靈山]으로, 만폭동은 신선 골짜기[紫澗]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이는 속세에서 벗어난 것 같은 정취와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 사용되었을 뿐, 「풍악록」의 만폭동 시와 같이 허구적이고 환상적인 공간 그 자체로 변환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구 이후부터는 김창협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만폭동의 실경에 기반하여 이를 충실히 묘사하였다. 만폭동을 칩칩이 에워싼 산봉우리, 계곡을 따라 힘차게 쏟아져 이루어진 수많은 연못, 5월임에도 여전히 서늘한 골짜기의 기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봄을 알리는 목련꽃 등은 모두 김창협이 직접 보고 겪은 만폭동의 경치이자 실상 그 자체이다. 높은 벼랑이 은하수까지 치솟았고, 찌렁 찌렁 울리는 물소리가 보덕굴 암자를 흔들어댈 정도라는 표현은 비현실적이지만, 이 또한 실경의 묘사에 다소 문학적 과장을 가미한 것일 뿐이다. 결국 김창협의 시는 어디까지나 금강산의 실경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과 허구적 성격이 강한 이경석의 만폭동 시와 차이를 보인다.

정리하자면, 이경석은 「풍악록」의 시에서 금강산의 경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기 보다는 자신의 상상력과 수사적 표현기법을 빌어 신선세계와 같은 환상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곧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는 것을 넘어 초월적 흥취를 느끼고자 했던 작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성격을 지닌 「풍악록」의 삽입시를 산문 서술과의 호응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삽입시와 산문서술 간의 역할 분리가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경석은 산문 서술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금강산 명소의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대신, 환상적인 선계를 묘사한 삽입시를 통해 자신의 낭만적 상상력과 흥취를 마음껏 드러내었다.

결국, 독자는 「풍악록」의 산문 서술을 통해 금강산의 명소에 대한 정

보를 얻고, 그와 동시에 낭만적 상상력이 가득 담긴 삽입시를 통해 속세에서 초월한 듯한 금강산의 환상적인 분위기와 흥취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풍악록」의 산문 서술과 삽입시는 각각 ‘정보의 제공’과 ‘환상적 분위기의 전달’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과 효과를 지닌 채,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헌 이경석의 「풍악록」은 시와 산문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것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경석의 「풍악록」에서 삽입시가 지니는 특성을 ‘다양한 정감과 의론의 표출’과 ‘상상력을 통한 낭만적 묘사’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경석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느낀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삽입시를 통해 압축적으로 전달하였다. 이 때, 유람의 여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산문 서술 속에 삽입된 시는 특정 공간 및 상황에서 작자가 느끼는 정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이경석은 「풍악록」에서 ‘상상력을 통한 낭만적 묘사’의 성격을 지닌 시를 다수 삽입하여, 금강산의 경물과 그 속에서 느낀 자신의 흥취를 환상적인 시구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풍악록」의 산문 서술과 매우 대조적이다. 즉, 「풍악록」에서는 산문과 삽입시가 각각 ‘객관적 정보’·‘환상적 분위기와 흥취’의 제공이라는 구별된 기능을 맡은 채 상호보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풍악록」은 시와 산문을 한 작품 안에 함께 수록함으로써, 각각의 장르가 지니는 저마다의 특성을 상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여타 기행작품과는 대별되는 금강산 기행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의 아쉬운 점은 유사한 형태를 지닌 타 유산문학과 비교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점인데, 추후에 타 작품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입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 文獻>

-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1-162.
- 申翊聖, 『樂全堂集』, 『韓國文集叢刊』 93.
- 尹 鏞, 『白湖全書』, 『韓國文集叢刊』 123.
- 李景奭, 『白軒集』, 『韓國文集叢刊』 95-96.
- 李廷龜, 『月沙集』, 『韓國文集叢刊』 69-70.
-
- 강혜선, 「17·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 , 「백현 이경석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6.
- 김동주 편역, 『금강산 유람기』, 전통문화연구회, 1999.
- 김보경, 「『遊金剛錄』에 나타난 再思堂 李穰의 산수 인식과 그 정신사적 의미」, 『동양한문학회』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관료문인의 산수유기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사회과학원 편역, 『금강산기행문』(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2004.
- 신은경, 「산·운 혼합담론의 유형과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 , 「기행문의 삽입시 연구」, 『동양학』 4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9.
- , 「한시의 장형표제에 대한 문체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 이경수 외 편역,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0.
- 이 훈, 「再思堂 李穰의 산수 유람관과 「遊金剛錄」 연구」, 『강원문화연구』 제26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Abstract

*Two aspects of the Inserted Poems in Lee, Kyeong-seok's
<Pungakrok(楓嶽錄)> / Chae Jee Soo**

Baekheon Lee, Kyeong-seok was a writer who lived during the reigns of the Joseon period king Seonjo and Hyeonjong(1595-1671)(Seonjo 28-Hyeonjong 12). As a statesman who served the state during two wars, he compiled the “Samjeondobimun” and suffered banishment to Baekmasan Fort in China. For about ten days after his release from exile in China in the ninth month of 1651, he traveled to the Keumgang Mountains and wrote “Pungakrok”. The work includes prose and 52 verses inserted into the prose text devoted to expressing his sentiments on the journey. It is noteworthy that at the end is included a long prose-poem work of 150 rhymes and 5 syllables.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Pungakrok” to see how the author used poetry in Chinese in his travel writing and the effects of the poetry as viewed in combination with the prose narrative.

“Pungakrok” is contained in the Shigo (詩稿) section in vol. 10 of Lee, Kyeong-seok's Collected Works entitled “Baekheon jip”. The work is centered on the author's trip to the Keumgang Mountains with verses added to the prose. But in terms of content the prose sections of the work relate the author's sentiments and experiences and may therefore be seen as an organically independent “travel record[遊記]”. So it is in the main a prose work with verses intermittently added. (詩插入型 散主韻從).

The prose narrative in the work is fairly concise and objective in nature,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octor course / nalnyang@naver.com

and shows many similarities with other similar prose narratives. But it also pauses in places within the prose and inserts a Chinese poetry to express his joys, sadnesses and empathy with respect to the special situations of the author's experiences during his journey to the Keumgang Mountains. Chinese poetry is used as a device to impart to the reader whose emotions not easily conveyed through prose.

In addition, the inserted Chinese poems in Pungakrok are often “romantic descriptions based in the authorial imagination”, and express what the author saw and experienced through fantastic poetry, as well as what fascinated him. These Chinese poems stand in sharp contrast to the objective prose narratives in the work. In other words, “Pungakrok” may be said to offer two distinctive functions: “objective information” and “fantastic environment and fascination” which mutually supplement each other.

In conclusion, “Pungakrok” contains both poetry and prose in a single work, a Keumgang Mountain travel record in which both components are used to complement each other's special characteristics.

【Key words】 Lee Kyeong-seok, Pungakrok, Keumgang Mountains, nature travel, Excursion Travels, inserted poetry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6일